

연변, 전통문화 통해 시대 활력 발산

—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행사 인기몰이

지난 6월 8일은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이었다. 이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 및 전승하고 력사의 맥을 계속 이어가며 시대의 장을 엮어가자’를 주제로 연길시 아리랑광장에서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참여 범위가 넓은 10여개의 특색 행사를 벌였다.

이날 연변가무단, 연변군중예술관,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연길시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 및 연길시, 도문시, 훈정시, 화룡시, 안도현 문화관과 연변전달래예술관 등 단위에서 공동으로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을 펼쳤다.

무형문화유산 곡예·음악·무용 등 대표적인 종목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에 활력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판소리, 조선족 학춤, 경극 등이 공연되면서 다 함께 즐기는 조화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전통공예류 무형문화유산 전시·판매 행사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교류체험 부스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당일 전시·판매된 전통공예류 무형문화유산 항목은 총 32개에 달했는데 조선족 복식, 조선족 민속악기 제작기에 등 2개의 국가급 항목과 조선족 전통 꽃떡 제작기에, 조선족 동지팔죽 제작기에, 만족전지, 복숭아씨 초소형 조각, 솔만자 공짜개 된장 제작기에, 추리구 버들가지 공예품, 조선족 돌술 제작기에, 조선족 비짚 공예품, 장씨 전통 가족제품 제작기에, 안도수씨 철제품 제작기에 등 10개 성급 항목 그리고 주급, 현급 무형문화유산 항목들을 포함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무형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그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근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무형문화유산 사업 기제를 부단히 보완해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활성화되도록 했으며 무형문화유산 진지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무형문화유산 계승이 활력을 띠게 했다. 무형문화유산 활동 내용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여 무형문화유



▲ 궁정꽃떡과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 친환경 편직물 생활용품

산 브랜드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해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전승하는 등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적극 추진했다.

2024년 3월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 항목 1개, 국가급 명부 항목 19개, 성급 명부 항목 90개, 주급 명부 항목 185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가급 대표적 전승인이 7명, 성급 대표적 전승인이 77명, 주급 대표적 전승인이 183명 있고 성급 전승기지가 7개, 전승소가 11개, 주급 전승기지가 37개, 전시지점(전승소)이 22개 있으며 주급 무형문화유산 체험기지가 12개 있다.

/ 김기해 김영화 김파 기자



▲ 산뜻한 아름다움 선물하는 조선족 전통 종이공예 작품들

전통문화 전승하고 생태문명 선양

제 20 회 중국조선족 (연길) 생태된장오덕문화절 및 오덕된장술축제 개막



▲ 된장담그기 시범표현과 함께 펼쳐진 천가족된장담그기 체험 행사 일각



▲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리동춘 리사장

제 20 회 중국조선족 (연길) 생태된장오덕문화절 및 오덕된장술축제 (이하 ‘된장문화절축제’)가 6월 9일 오전 연길시 의란진 련화촌에 위치한 오덕된장술유한회사 원로기지인 천하제일 민들레생태된장마을에서 펼쳐졌다.

6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된장문화절축제 행사는 연길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연변생태문화협회, 연길시문화관, 연변문화추진회,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연변향토문화연구회의 주관으로 펼쳐진다.

료해에 따르면 된장문화절축제 기간 된장담그기, 장독대고사, 신주빚기, 민속공연, 천가족된장담그기, 시범미술필회, 촬영작품전시, 진달래장터, 시가랑송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펼쳐진다.

이날 된장문화절축제에서는 된장담그기 성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의 지도하에 연길시문화관의 53명 된장담그기 시범표현이 펼쳐진 가운데 천가족된장담그기 체험 행사가 펼쳐졌

다.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총경리인 로영란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된장문화절축제에 참가한 인원수는 역대 최고로 큰 1만여명, 행사의 주요 내용의 하나인 된장담그기 체험에 조선족된장담그기에 관심이 있는 많은 가정들이 찾아와서 한차례 유익한 된장담그기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연길시에서 온 김씨 녀성은 가족과 함께 된장담그기 체험을 했다면서 이는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체험으로서 특히는 후대들에게 민족전통음식을 전승하고 알게 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8월 25일 민간인 몇십명이 모여서 시작된 된장문화절축제는 올해까지 이미 2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된장문화절축제를 통해 연변생태문화협회를 출범시켰고 문화자신감을 안고 된장의 날을 정하여 문학, 음악, 촬영, 미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된장오덕 및 음식문화의 정수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전승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 정부의 축제로 격상된 된장문화절축제 행사는 지난해 전국축제문화관광대회에 참가하여 ‘우수브랜드’상을 수여받으면서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이 겸비된 문화시대를 선도해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사랑하고 즐기는 브랜드 명품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리동춘 리사장은 된장문화절축제가 다년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데는 연길시정부를 비롯한 유관부문과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우리의 전통음식인 된장



▲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체현하는 된장의 ‘화심’



▲ 매주로 골고 띄워내는 정성

도 성급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으며 향후 초심을 잃지 않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생태문명을 선양하며 건강발효산업 시대를 이끌고 연변의 대건강 민족브랜드산업을 창출해나가는 축제의 취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글 안성근기자 / 사진 박경남 허철 특약기자

제 7 회 연변교사시조문학상 시상식 도문서

연변교사시조문학회의 주최로 해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연변교사시조문학상 시상식이 7회째 이어지면서 6월 8일 오전 도문서에서 제 7 회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연변교사시조문학회 허승철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말 고유의 민족시가형태의 문학 장르인 시조를 사랑하고 보급하는 가운데서 거둔 교사들의 성과를 긍정하고 이번 공모에 참여한 시조작품들이 내용과 표달방식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제고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계속 이

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길림시조선족실협소학교 김철연교원의 시조 <매물>이 금상을 수상하고 박송천교원의 시조 <무지개 풍경>이 은상을, 김명숙교원의 시조 <우산>이 동상을, 최봉녀교원의 시조 <내 마음>이 신인상을 수상했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들인 김영진, 김선화,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부주석 남철, 녀류시인 최기자 등이 시상식에 참가하여 시상하고 격려의 말을 하였다. / 김태국기자



▲ 수상자들과 시상식 참석자들 기념사진

문화와 기업의 만남, 토템시비림 (원용원) 제막

제 20 회 중국조선족 (연길) 생태된장오덕문화절 및 오덕된장술축제 행사의 일환인 토템시비림 (원용원) 제막식이 6월 10일 오전, 연길시 공학경제개발구내에 자리잡고 있는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에서 있었다.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울안에 조성된 300평방미터 면적의 토템시비림 (원용원)에는 토템시의 창시자인 남영전시인이 1987년부터 창작하여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아온 대표적인 토템시 42수가 아름다운 시비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리동춘 리사장은 생태산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생태문화리론을 기초로 해야 한다면서 토템시는 인류의 뿌리이고 생태문화이기 때문에 생태문화를 탐구하고 발굴하기 위해 특별히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에 토템시비림 (원용원)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김영진은 제막식 축사에서 시비림의 조성과 제막은 우리 시와 기업의 첫 합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 우리의 력사,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함께하는 우리 토템의 뿌리 깊은 련결을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 시가 어떻게 씌어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되기



▲ 토템시비림 (원용원) 제막 현장

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영전시인은 조선민족의 저명한 시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 중국을 포함한 조선어의 범위를 뛰어넘어 중국문단에서도 크게 자리잡은 자랑스러운 민족시인이며 토템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당대 중국의 시문학에 새로운 시의 부흥을 일으킨 시인이기도 하다. 남영

전시인의 시는 중국 당대 학자들에 의해 <남영전토템시학> 등 전문저서와 논문집 등으로 13권이 출판되었으며 국내외에서 12차례의 연구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남영전 토템시는 중국내 대학교 교재에 등재되었고 석사생, 박사생들의 논문 연구 대상으로 되고 있기도 하다. / 안성근 김파 기자